소망은 먹고 싶어 침 흘리기

(시편 16:1~11)

1.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3.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4.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5.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소망은 먹고 싶어 침 흘리기>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소망은 먹고 싶어 침 흘리기'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라면 지금 먹고 싶어 침을 흘린다는 의미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망매지갈(望梅止渴), 매림지갈(梅林止渴), 망매해갈(望梅解渴)"이라는 사자성어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망매지갈은 바랄 망(望), 매화나무 매(梅), 멈출 지(止), 목마를 갈(渴)자입니다.
매화나무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갈증을 이겨낸다는 뜻입니다.
유비가 아직 조조 밑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조조가 유비를 불러 술을 한잔 마시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장수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행군하는 도중 물이 떨어져서 병사들이 심한 갈증으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 물이 있다는 정보도 없는 가운데 군대의 사기가 떨어지게 되자 조조는 꾀를 냈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언덕 너머를 말채찍을 들어 가리키면서 매실나무 숲이 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곧 잘 익은 매실을 먹을 수 있게 되니 잠시만 참고 힘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병사들은 매실의 신 맛을 생각하자 입에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입 안에 침이 가득 고이게 되면서 그 침을 삼키다 보니 갈증을 잊게 되어 행군을 계속할 수 있었고, 오래지 않아 물 있는 곳을 찾아서 다행히 갈증과 피로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일화입니다.

이 '망매지갈'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망(所望)은 곧 바라는 바입니다. 매실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입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마찬

가지로 바라는 바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그것을 생각만 해도 침이 흐르는 것입니다. TV를 보다보면 음식을 맛있게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집은 대체로 그 음식이 그날의 메뉴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보면서 군침이 도니 안 먹고는 못 배기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도 이와 같이 군침을 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은 '바라본다.'라는 뜻의 video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음으로 바라보면 군침이 돌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바라봐도 군침이 돌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고 꿈도 소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여 가계신 곳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 알려주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매실나무를 생각하며 군침을 흘렸던 조조의 병사들이나, TV의 음식을 보면서 군침을 흘리는 저처럼, 천국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군침이 흐르지 않는다면 천국이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나아서 건강한 몸으로 이 좋은 가을 날씨에 활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군침이 흐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돈이 한 3억만 주어진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적 문제로부터 해결 받을 수 있겠다는 마음의 군침이 흐릅니다. 이렇게 마음에 군침이 흐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향하여 침을 흘리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군침은 조건반사적으로 저절로 흐르는 것은 아닙니다. 군침이 흐르는 소망이 되려면 생각과 정신을 통한 일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시편 15편을 공부하면서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이후로는 예루살렘을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입당송으로서 애창되었다고 합니다.

먼 곳에서 온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대답을 해주든지 자신이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조건에 맞는 행동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최고로 바라는 바요 소원인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은 사람은 세상일을 기쁨으로 삼는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소망하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 소망의 내용을 더 근본적이고 궁극적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성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 실제 하늘로 소망의 내용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가르쳐주셨듯이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줄여서 말을 하면 하늘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진짜 하늘을 향해서 군침을 흘리는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알아보고, 특별히 위기를 당했을 때에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며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시편 16편 전체의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구절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은 이 세상 것에 대해서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갖고 싶어서 침 흘릴 정도인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위기에 몰린 삶의 상황을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피난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침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많이 먹고 싶어 하는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만날 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뿐임을 스스로에게 확인시켰던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나약해 보이는 사람의 말처럼 들립니다. 위기를 만나 이 세상에서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상실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상실의 가능성이 없다면 위기가 아닙니다. 소중한 것들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을 때에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향해 침 흘리는 사람들이 위기를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지금 위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것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심지어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 없어진다고 하여도 실제로 상실되는 것은 없다고 자기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고 현재 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근본적으로 상실이 아닌 이유는 진짜 나의 복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며 깨우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합니다.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대처하던 중에 갑자기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땅에서 잃어버릴 것들 중에 인간관계도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기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친하다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위

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는 성도들에 국한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곧 나와 같이 하늘을 향해 침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복이 하늘에만 있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 외의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이유는 똑같이 하늘을 향해 침을 흘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한 관계일 뿐입니다. 진정한 나눔을 갖고 형제와 가족으로 여기는 자들은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는 성도들일 뿐입니다. 실제로 한 가족 내에서도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늘을 군침 흘리는 자들이 되자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내 마음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추구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4절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신은 곧 빈 마음을 채워 주리라고 믿어지는 대상입니다. 마음은 채워질 때에 만족과 기쁨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종교와 정치가 한데 얽혀있었지만 요새는 종교가 다양한 문화의 한 섹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문화현상으로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에 대한 숭배는 여전히 인간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도록 만들어졌기에 그 자리는 신의 자리입니다. 그 신의 자리에 돈을 들여놓으면 돈이 신격화됩니다. 자녀를 들여놓거나 결혼을 들여놓는다면 그것이 신이 됩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서 하는 활동은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한 욕구의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에너지는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되는데 그 채우고자 하는 것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에도, 공부를 할 때에도, 정치를 할 때에도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빈 구석을 채우기 위한 신을 숭배하는 행위가 됩니다. 신 숭배에서 제외되는 행동과 생각과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빈 마음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침 흘리는 자들입니다. 돈을 숭배하는 자들 틈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 위기를 만나서 소망의 문제를 확인시키고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일어나는 일이 5절과 6절에 드디어 소망하는 하늘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산업이고 소득이기에 그 어떤 위기가 와도 나의 산업만큼은 상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손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어서 6절에서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하는데 소망하면서 군침만 흘리던 천국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

운 곳이 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의 베드로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봅니다. 변화산 사건의 위치를 보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마음을 드리면(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끌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위치로 마음이 끌려 간 자들 전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고되고 나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즉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마음을 둘 때에, 마음이 하늘을 갖게 될 것을 변화산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변화산 사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직접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베드로가 겪은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그 좋음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 좋음은 베드로가 산 아래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음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망이 망각의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산 아래에 있던 베드로가 세상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는 재벌 되기를 원할 수도 있고 대통령 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눈앞에서 볼 때에 그러한 소망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망각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말하는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세상에 대해 죽으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모든 소망에 대해 죽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군침 흘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갖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소망하는 것들은 베드로의 망각의 주머니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9절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하늘나라를 인정하고 군침 흘리며 삶의 현실을 대할 때에 평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육체가 처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에서 느끼는 안전함은 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님처럼 잘 믿어도 순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의 힘이고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평강이 깨어지지 않음입니다. 그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먹고 싶어 하고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만으로 배부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상실감을 느끼게 하거나 우울함을 주거나 평강을 빼앗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을 향해 침을 흘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기도와 십자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TV에서 짜장면을 먹는 장면이 나올 때에 군침이 흐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변화산의 경험을 통해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산 아래의 일인 한 베드로의 망각의 주머니 속으로 빨려들어 갈 일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잊게 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믿음임을 나 스스로에게 가르칠 때에 실제로 그 하늘을 느끼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군침 흘리는 자들이 되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매실나무를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TV에서 짜장면을 먹는 모습만 봐도 군침이 도는데, 산 아래의 모든 일을 잊을 만큼 좋은 천국을 보았던 베드로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천국을 향해 침을 흘려본 적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하늘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을 갖고 싶어서 군침이 흐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